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1

지옥 중생 다 성불 할 때까지

[원문] 地藏大聖佛身(지장대성위신력) 恒河沙劫說難盡(항하사겁설난진) 見聞瞻禮一念間(견문첨례일념간) 利益人天無量思(이익인천무량사) -홍국사 명부전

[번역] 지장대성 위신력은 항하사 겁을 설해도 못 다할 일세 잠시 동안 보고 듣고 절하더라도 인간 천상의 이익이 한량없도다.

[신해(禪解)] 율해는 유난히도 이 나라에 슬픈 일들이 많았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거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확연히 그 궤를 달리한다.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한 분은 아흔 가까이 사시다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차피 '죽음이란 돌이 아닌 하나'다. 인간은 그 누구도 생로 병사의 아픔을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이 출가를 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로병사의 아픔을 모두 겪으며 남북화해의 정상 회담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자신의 민주적인 원(願)을 모두 이루고 세상을 떠난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모두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

이젠 정말로 지옥,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불필요한 종교적 편향에서 벗어나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보장해야 한다. 이젠 정말 통합과 소통의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가까운 서울 근교 사찰이다. 홍국사는 한국불교가 왜색불교를 몰아내고 선불교(禪佛敎) 중심의 조계종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로서 196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의 발단이 된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사찰에 들렀다가 아이의 기저귀가 빨래 줄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왜색불교인 대처승을 몰아내는 정화유시를 발표, 한국불교정화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어쩌면, 이곳을 암울한 한국불교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절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절이라 할 수 있다.

지장보살 원력 우리 삶속에서 실현될 때 불국정토 마음 밝으면 극락 어두우면 지옥, '돌 아님' 알아야

홍국사의 창건 역사는 깊다. 미타전 아미타불 복장 '연기문'에 수록된 것을 보면 1,300여년 전 신라문무왕 원년에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원효 대사가 북한산 원효암에서 수행을 하다가 북서쪽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려 왔다가 서기를 밟고 있던 석조 약사여래(藥師如來)부처님을 본 후, 인연도량이라 생각해 본전(本殿)에 약사부처님을 모시고 '상서로운 빛이 일어난 곳이라 앞으로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다' 하고 절 이름을 흥성암(興聖庵)이라 지었다고 돼 있다. 이후 조선 숙종 때 중창을 하고 영조 시대에 크게 발전을 시켰다고 돼 있다. 특히 영조 대왕은 미타전 아미타불을 개금 중수했으며 생모 숙빈 최씨의 묘원인 소녕원에 행차했다가 많은 눈을 만나 이를 피해 이곳에 들러 하루 밤을 머문 뒤 아침에 일어나 한편의 시를 적었는데 '朝來有心喜 尺雪驗豐徵: 아침이 돌아오니 마음이 기쁘구나. 눈이 한 치나 쌓였으니 풍년이 들 징조로다'라는 시구(詩句)를 편액(編額)으로 만들어 친히 하사하며 약사전을 중창, 왕실의 원찰이 돼 왕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많은 스님들이 중창을 하다가 관선, 법현 스님에 의해 후불탱화와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조성했다. 특히 이 사찰에서 유명한 것은 설 법전으로서 정면 7칸 측면 8칸 규모의 H자형 팔각지붕 건물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홍국사가 불화를 조성하는 불모(佛母)들의 근거지인 경산화소(京山畫所) 불려질 때 이 건물에서 많은 불화를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쓴 '홍국사(興國寺)'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내부에는 근래까지 만월보전에 봉안했던 팔상탱과 괘불, 천수전안관음보살좌상, 지장탱, 신중탱, 범종 등을 봉안하고 있다. 이 밖에 홍국사는 약사기도처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출가(出家)한 딸이 하나 있었다. 속가의 아버지인 이성계가 병이 나자 약사여래를 바로 이곳에 조성했다. 이 후 홍국사는 신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절에서 치성을 올리면 건강을 회복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왕전의 내부에는 중앙의 목조지장삼존을 비롯해 시왕, 판관, 귀왕, 사자, 장군 등의 명부권을 배치했다. 이러한 존상 뒤로는 1792년 조성한 지장탱과 역시 같은 해에 조성한 시왕탱이 봉안돼 있는데 시왕전의 주련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담고 있다.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겁설난진: 지장대성 위신력은/항하사 겁을 설해도 못 다할 일세.' 원래 지장보살은 도리천공에서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고 매일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根機)를 관찰, 석가세존이 입멸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 할 때까지 몸을 육도(六度)에 나타내어 천상에서 지옥까지 고통에 빠진 일체중생을 다 구원하고 그 모두가 성불한 후에 스스로 성불하겠다고 했던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보살이다. 여기에서 '항하사'란 갠지스 강의 모래라는 뜻으로, 무한히 많은 것 또는 그런 수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으로서 지장보살의 원력은 그 항하의 모래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견문첨례일념간 이익인천무량사: 잠시 동안 보고 듣고 절하더라도/인간 천상의 이익이 한량없도다.'

이러한 지장보살을 중생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보고 듣고 절하더라도 큰 공덕(功德)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극락과 지옥은 돌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으면 그것이 지옥이요, 밝으면 극락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몽환포염(夢幻泡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이다. 세상에선 분명히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으며 비굴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의 죽음을 두고 어찌 일설(一說)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우리 중생들은 그들이 가졌던 권력과 명예, 무한한 물질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맑은 생이란 '한가 꿈이며 환에 지나지 않고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몽환포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1

세상 즐거움에 집착하지 마라

[원문] 心驚起 卽魔攝. 法身本來清淨無受. 只緣迷故 不覺不知 因茲故 妄受報. 所以有樂者 不得自在. 只今若悟得 本來身心 卽不染習. 若從聖入凡 示現種種雜類等 自爲衆生. 故聖人逆順皆得自在 一切業拘他不得 聖成久. 有大威德 一切品類業 被他聖人轉 天堂地獄 無奈何他. 凡夫神識昏昧 不同聖人內外明徹. 若有疑卽不作 卽流浪生死 後悔無相救處. 貧窮困苦皆從妄想生 若了是心 遞相勸勉 但無作而作 卽入如來知見.

'임종할 때에도 전혀 상(相)을 취하지 않으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털끝만치도 일으키기만 하면 악마의 경계에 이끌리게 되느니라. 법신은 본래 청정해 받아들일 것이 없는데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이로 인해 업보를 쓸데없이 받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느니라 자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지금이

다. 그러므로 우주의 근본실상 반야자리는 본래 청정해 받아들일 것이 없는데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로 인해 업보를 쓸데없이 받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느니라 자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수행이나 출가를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습(習: 습기, 잘못된 습관에 물들지 않느니라.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지로 들어가 온갖 모습은 나타내 보이는 것은 중생을 위한 까닭이니라.'

도(道)를 깨치면 습기가 없어진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근본실상은 체함을 했지만, 전생의 업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을 녹이는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임 수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백생 동안 보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수행을 하셨고, 마지막 성불(成佛)의 경지까지 가신 분이기에 때문에 과거로부터 익혔던 습기가 모두 끊어졌겠지요. 도(道)를 깨쳐 우주가 하나 되는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 경지, 모양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업(業)을 다 녹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속 수백 생 동안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습기가 다 끊어져 나간답니다. 우주와 하나가 돼 자비의 차원에서 온갖 화현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몸을 나투기도 합니다.

'성인은 역(逆): 악을 짓는 것, 순(順): 선을 이루는 것에 자재하므로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중생은 업(業)에 끄달려 살지만 성인은 업(業)을 자유자재로 운용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인은 온 온 경계에서 벗어나 무에 자재하게 몸을 나눌 수 있는 육신통(六神通)을 쓰기 때문에 대자유인, 대해탈자라 합니다.

'범부는 신식(神識): 의식, 심식이 어리석어 사리에 어두우므로 성인처럼 안과 밖이 확실하게 밝지 못하니 의심이 생기더라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의심을 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를 헤매느라 후회를 해도 구제할 길이 없느니라.'

성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로 보고 가지런, 우리는 안과 밖을 따로 보잖아요. 분별하는 세계란 얘기죠. 의심이 생기더라도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日 무로마치(室町, 1338~1573년) 시대 명조(明朝) 作 달마도(동복사 소장).

Advertisement for 'Chodamhwa' (초담화) by Jido Sunim. It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content, which is a collection of poems and reflections on the path of the Dharma. The book is priced at 7,000 won.

Advertisement for 'Cheonnyeon Sarang' (천년사랑) natural food products. It promotes the benefits of natural food for health and vitality, especially in winter. It includes a photo of a person eat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rdering samples.